

인 사 말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는 어울림마당과 자비나눔 행사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자들의 정성어린 손끝에서 피어나는 연등축제가 이제는 세계인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어울림마당과 자비나눔 행사는 연등축제 1주일을 앞두고 준비행사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등축제 행사를 위해 어울림마당에 참여가 어려웠던 진행 요원들과 지방에 계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연등음악과 율동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즐거움으로 행사를 준비한 참가단체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무한한 격려를 보냅니다.

연등축제에 참여하는 14개 연희단 570명, 어린이, 청소년, 대학 청년 26개 율동단 600여명이 연등축제의

**흥을 돋우고 아름다움과 역동성으로
전국의 불자들에게 환희심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시험을 마친 기간이어서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자리가 비교하고 경쟁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각자의 색을 드러내는 가운데 아름다운
마음이 만드는 화합의 축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화합과 나눔의 축제에
희망더하기 모금행사를 병행하여**

자비나눔 운동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외로움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나투신 분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전생에 많은 복을 지은 덕분에 받기 어렵다는 사람 몸을 받았고,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번 생에도 복을 많이 지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려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큰 복을 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을 기리며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는

부처님오신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부처님을 맞이하듯 율동단과
연희단의 공연을 보면서 마음껏 즐기
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그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4년 5월 9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